



부산과학고등학교

소집면접 기출 학습교재

창의인성편

들어가며 — 인성 문항은 “착한 답”을 고르는 시험이 아니다

부산과학고의 창의인성 문항 4년치를 나란히 놓으면 놀랄 만큼 비슷하다.

학년도	상황	나에게 걸린 갈등
2022	친구 A가 B의 표절을 알려 주며, 비밀을 안 지키면 왕따를 시키겠다고 협박	정직·공정 ↔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나의 안전
2023	속상해하는 친구 A가 방과 후 시간을 요청 / 나는 내일 조 대표 발표 준비	친구에 대한 배려 ↔ 조원 전체에 대한 책임
2024	단짝 A가 같은 조를 하자고 부탁 / 나는 과학을 잘하는 B와 하고 싶음	우정 ↔ 나의 이익(성취)
2025	A가 단독방에 B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고 동조 댓글이 이어짐, B는 무너짐	방관 ↔ 개입, 다수 ↔ 소수

1. 모두 「나」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단순히 「친구가 곤란해요, 도와줄까요?」가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거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그래서 「당연히 도와줍니다」라는 답은 상황을 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즉답형이 아니라 구상형이다.** 문항지에 「구상란」이 있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진다. 즉 **정리된 구조로 말**하는 것이 기대된다.
3. 발문이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십시오」다. 감상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한다. 「안타깝습니다」로 끝나면 답하지 않은 것이다.
4. **2025학년도부터 사안이 무거워졌다.** 학교폭력이라는, 개인의 선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등장했다. **제도와 어른의 개입을 언제 요청할지** 판단하는 능력을 묻기 시작한 것이다.

4년치를 관통하는 답변 설계 — 5단 구조

출제의도 · 평가포인트

어떤 상황이 나와도 다음 다섯 단계로 말하면 빠뜨리는 것이 없다. 실제 면접에서는 2~3분 분량이다.

1. **상황 정리** — 「이 상황의 핵심은 ○○와 ○○가 부딪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제를 내 언어로 다시 정의한다. 여기서 이해도가 드러난다.
2. **가치 판단과 기준** — 「저는 ○○을 더 우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 ← 어느 쪽을 택하든 좋다. **기준을 밝히는** 것이 채점 대상이다.
3. **구체적 행동** — 「먼저 …하고, 그다음 …하겠습니다.」 ← 순서와 대사를 넣어 말할수록 좋다.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는 행동이 아니다.
4. **상대 배려** — 「그 과정에서 ○○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갈등의 반대편도 사람이라는 인식.
5. **한계 인정과 확장** — 「제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 만능인 척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성숙함으로 평가된다.

교과서 개념 정리

하면 안 되는 답변 다섯 가지

1. **영웅형** —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중학생 혼자 학교폭력이나 표절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 과장은 오히려 판단력 부족으로 읽힌다.
2. **회피형** — 「제 일이 아니니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문항이 굳이 나를 당사자로 설정한 이유를 무시한 답.
3. **고자질형** — 「바로 선생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로 끝. 어른의 개입은 **필요하지만 마지막 카드**이고, 그 전에 당사자와 무엇을 했는지가 있어야 한다. (단, 2025학년도처럼 **피해가 진행 중인 폭력 사안**은 예외적으로 신속한 신고가 정답에 가깝다.)
4. **교과서형** — 「정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원칙만 읊고 행동이 없다.
5. **자기희생형** — 「제 발표를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책임을 저버리는 선택도 좋은 답이 아니다. **양쪽을 다 지킬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

원문 출처: 부산과학고등학교 입학계시판 공개 자료 · 문항의 저작권은 부산과학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예시답안·해설·개념 정리는 본 교재에서 자체 작성한 것으로 학교의 공식 채점 기준이 아닙니다.

표지 인물 이미지는 실존 인물이 아닌 생성형 이미지입니다.

2022학년도 · 창의·인성 문항

2022학년도 · 2차 소집면접 — 창의·인성

다음은 수행평가 점수 발표 후 반장인 나에게 A가 와서 나눈 고민이다. 지원자가 **반장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하시오.

A: 반장, 독서감상문 100점 축하해.

나는 열심히 작성했지만 점수를 낮게 받아 속상해. 근데 B도 100점 받았잖아.

사실 B는 인터넷에서 복사해서 제출했대.

그리고는 나한테 비밀을 안 지켜주면 우리 반에서 일 년 내내 왕따를 시킨다고 했어.

선생님이 표절하면 0점 처리한다고 했는데...

출제의도 · 평가포인트

이 상황에는 네 가지 문제가 겹쳐 있다. 하나만 보고 답하면 반드시 빠뜨린다.

① 표절	B가 남의 글을 베껴 제출했다 — 학업 부정행위이자 평가의 공정성 훼손
② 협박	B가 A에게 「말하면 왕따시키겠다」고 위협했다 — 이것이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다
③ A의 부담	A는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포와 죄책감을 떠안았다
④ 나의 위치	나는 반장이고 100점을 받은 당사자다 — 개입할 책임도, 오해받을 위험도 있다

핵심 — 많은 학생이 ①만 보고 「표절은 잘못이니 신고하겠습니다」로 끝낸다. 그러나 문항이 굳이 협박을 넣은 이유가 있다. ②를 언급하지 않으면 상황을 절반만 읽은 것이다. 또 「반장이라면」이라는 단서는 공적 역할을 어떻게 쓸 것인지 보겠다는 신호다.

예시답안 · 풀이

① 상황 정리

이 상황의 핵심은 표절이라는 부정행위와, 그것을 덮기 위한 협박이 함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B가 A에게 왕따를 시키겠다고 한 것은 표절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② 우선 A의 안전과 마음을 먼저 챙긴다

먼저 A에게 「말해 줘서 고맙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A는 지금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협박을 받고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되든 네가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③ B에게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준다

그다음 B를 따로 만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럿 앞에서 말하면 B가 더 방어적으로 나오고 A가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에게는 두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 「표절은 선생님께서 0점 처리한다고 하신 부분이고,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다. 지금 네가 먼저 말씀드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그리고 친구를 왕따시키겠다고 협박한 건 표절보다 훨씬 큰 문제다. 그 말은 반드시 취소했으면 좋겠다.」

④ 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한다

만약 B가 스스로 말씀드리지 않거나 협박을 계속한다면, 저는 **반드시 선생님께 알리겠습니다**. 이때는 A를 보호하기 위해 「제가 알게 되었다」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고, 협박 부분을 반드시 함께 전하겠습니다. 왕따 문제는 반장이 혼자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실제로 A가 피해를 입은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⑤ 나의 위치에 대한 정직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같은 수행평가에서 100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B의 표절을 문제 삼으면 「경쟁자를 떨어뜨리려 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제 점수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협박과 공정성 문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장으로서 평소에 「베껴 쓰는 것은 나중에 자기에게 손해」라는 이야기를 학급에서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의도 · 평가포인트

평가포인트

채점될 만한 요소	중요도
협박(왕따 위협)을 표절과 별개의,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는가	★★★
A의 안전과 심리적 부담을 먼저 다루었는가	★★★
B에게 스스로 정정할 기회 를 준 뒤 단계적으로 나아갔는가	★★
교사 개입의 조건과 시점 을 스스로 정했는가 (무조건 신고 $\times$ / 절대 신고 안 함 $\times$)	★★★
「반장」이라는 역할과 「100점 당사자」라는 이해충돌을 인식했는가	★★
재발 방지를 위한 학급 차원의 제안이 있는가	★

꼬리 질문 대비 — 「B가 끝까지 부인하면?」 「A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면?」 「선생님께 말했다가 A가 더 힘들어지면?」이 실제로 나온다. 미리 「**그 경우에는 ○○ 때문에 △△하겠습니다**」를 준비해 두라. 인성 면접의 실제 승부는 꼬리 질문에서 갈린다.

2023학년도 · 창의인성 문항

2023학년도 · 2단계 소집면접 문항 3

다음은 ‘나’가 처한 상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 수행평가 점수가 발표된 후, 친한 친구인 A가 나에게 찾아와 열심히 노력해도 점수가 낮아 속상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A는 내일 있을 수학 수행평가도 걱정된다며 나에게 방과 후에 좀 더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평소 밝기만 한 A였기에 나는 A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런데 나는 내일 수학 수행평가에서 우리 조를 대표하는 발표자의 역할을 맡아서, 오늘 방과 후에는 발표 준비를 할 계획이었다. 나의 발표는 다른 조원들의 점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지원자가 ‘나’라고 가정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그 이유를 말하시오.

출제의도 · 평가포인트

전형적인 **시간·역할 충돌** 상황이다. 양쪽 모두 정당한 요구라는 점이 핵심이다.

- **A쪽** — 친한 친구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평소 밝기만 한 A」라는 문장은 **이 신호가 예사롭지 않다**는 힌트다. 미루면 안 될 수도 있다.
- **조원쪽** — 내 발표가 다른 사람의 점수까지 좌우한다. 즉 **나 혼자 손해 보고 끝나는 선택이 아니다**. 「친구가 우선이니 발표를 포기하겠다」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문항의 정답 방향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지킬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다. 시간을 쪼개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끌어오고, 우선순위를 나누는 **문제 해결력**을 본다.

예시답안 · 풀이

① 상황 정리

저는 이 상황이 「친구를 도울 것인가, 조원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인가」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을 버리면 결국 둘 다 나빠진다고 봅니다.

② 먼저 A에게 지금 바로 짧게라도 반응한다

A가 눈물을 보인 것은 평소와 다른 신호이므로 「내일 이야기하자」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하교 직후 10~15분이라도 바로 시간을 내어 A의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이때 조언을 하려 하기보다 **「많이 속상했겠다, 네가 노력한 걸 내가 안다」** 처럼 감정을 먼저 받아 주겠습니다. 사실 A가 원하는 것은 해결책보다 **들어 줄 사람**일 가능성이 큼니다.

③ 상황을 A에게 솔직히 말하고 함께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A에게 제 상황을 숨기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방과 후에는 조 발표 준비를 해야 해서 길게는 어려워. 대신 준비 끝나고 저녁에 전화해도 될까? 그리고 내일 수학 수행평가 끝나고는 시간을 충분히 낼게.」 **거절이 아니라 다른 시간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나중에」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각을 약속**하겠습니다.

④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

A가 걱정하는 것이 내일의 수학 수행평가라면, 아예 **발표 준비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발표 연습을 하고 A가 들어 주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짚어 주면, A에게도 수학 수행평가 준비가 되고 저에게도 청중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일을 한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⑤ 조원들에게도 미리 알린다

조원들에게는 「오늘 준비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 있으니 자료를 먼저 정리해 달라」고 미리 부탁하겠습니다. 제 사정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⑥ 한계 인정

만약 A의 힘들어하는 정도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느껴진다면, A에게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해 볼 것을 조심스럽게 권하겠습니다. 친구로서 곁에 있어 주는 것과,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출제의도 · 평가포인트

평가포인트

채점될 만한 요소	중요도
양자택일을 거부하고 둘 다 지킬 방법을 설계했는가	★★★
A에게 즉시, 짧게라도 반응했는가 (「평소 밝기만 한」의 단서를 읽었는가)	★★★
거절이 아니라 구체적 시간을 제안했는가	★★
조언보다 경청·공감을 먼저 두었는가	★★
조원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고 사전 공유했는가	★★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선을 인식했는가	★

자주 나오는 감점 답변 — 「발표를 포기하고 A를 돕겠습니다」(조원에 대한 책임 방기), 「내일 이야기하자고 하겠습니다」(신호를 못 읽음), 「A에게 공부 방법을 알려 주겠습니다」(A가 원하는 것은 조언이 아님).

2024학년도 · 창의인성 문항

2024학년도 · 2단계 소집면접 문항 3

과학 수행평가를 위해 2명씩 조를 짜야 하는 상황에서 A가 ‘나’에게 이야기한 내용이다.

A: ○○아, 나랑 과학 수행평가 조 같이 해줄 수 있어?
나랑 같이 조를 해줄 친구가 아무도 없어. 평소에 우리 매일 같이 다니잖아.
게임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는 단짝 친구인데..., 너랑 꼭 같은 조 하고 싶어.

‘나’는 과학을 매우 잘하는 B와 같은 조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시오.

출제의도 · 평가포인트

2023학년도가 「배려 ↔ 책임」 이었다면, 2024학년도는 「**우정 ↔ 나의 이익**」 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익을 보는 쪽이 **나 혼자**이므로, 2023학년도처럼 「조원에 대한 책임」 이라는 명분이 없다. 훨씬 솔직해져야 하는 문항이다.

숨은 정보 두 가지를 읽어야 한다.

- 「**같이조를 해줄 친구가 아무도 없어**」 — A는 단지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다**. 내가 거절하면 A는조를 못 짤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A가 이미 학급에서 고립되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다.
- 「**과학을 매우 잘하는 B**」 — 내가 B를 원하는 이유는 우정이 아니라 **점수**다. 이 동기를 스스로 인정하고 말할 수 있는지가 이 문항의 진짜 시험이다.

가장 좋은 답변은 「**A와 하겠습니다**」로 결론짓되, 그 이유가 「**착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납득한 기준이어야 한다. 반대로 「**B와 하겠습니다**」를 택하더라도, A가 혼자 남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함께 말한다면 충분히 좋은 답이 될 수 있다.

예시답안 · 풀이

① 솔직한 상황 정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과학을 잘하는 B와 같은 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친구를 도와줄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제 욕심과 A와의 관계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할지** 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② 저는 A와 같은 조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A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A는 「같이 해 줄 친구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A는 조를 짜지 못하거나 억지로 남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면 저는 B와 못 하더라도 다른 기회가 많습니다. **있는 것의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2. **수행평가는 다시 있지만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점수를 위해 단짝을 외면하면, A는 오래 기억할 것이고 저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3. **조 활동의 목적은 함께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기대어 점수를 받는 것보다, A와 함께 부딪히며 준비하는 편이 제게도 더 남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③ 그러면서도 제 욕심을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A와 조를 짜되, **잘하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A와 역할을 나누어(예: 실험 설계와 자료 정리, 발표) 각자 잘하는 부분을 맡고, 모르는 부분은 B에게 물어보거나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B와 조가 아니어도 배울 수는 있습니다.

④ B에 대한 배려

B에게도 미리 말하겠습니다. 「같이 하고 싶었는데 A와 하기로 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하자.」 아무 말 없이 다른 조를 짜면 B도 기다리다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⑤ A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A에게는 「나랑 하자」고 말하되, 「친구가 없어서」라는 이유로 나를 찾은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이야기도 언젠가는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습니다. A가 다른 친구들과도 지낼 수 있도록, 조 활동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출제의도 · 평가포인트

평가포인트

채점될 만한 요소	중요도
자신의 동기(점수 욕심)를 숨기지 않고 인정했는가	★★★
선택의 기준을 제시했는가 (예: 「잃는 것의 크기가 다르다」)	★★★
A의 고립 가능성을 읽어 냈는가	★★
선택하지 않은 쪽(B)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
A와 함께해도 성취를 포기하지 않는 구체적 방법을 냈는가	★★
A가 다른 관계로 확장되도록 돕는 시각이 있는가	★

「B를 택하겠다」 고 답해도 되는가? — 된다. 다만 그때는 ① 왜 그것이 정당한지(예: 「미리 B와 약속했었다」), ② A가 혼자 남지 않도록 어떻게 할지(예: 다른 친구를 연결, 선생님께 조 편성 도움 요청), ③ A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를 반드시 함께 말해야 한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기적인 답으로 읽힌다.

가장 흔한 감점 답변 — 「셋이 같이 하겠습니다」 (2명씩 짜라는 조건 위반. 조건을 어기는 창의성은 창의성이 아니다), 「당연히 A와 하겠습니다, 친구니까요」 (B를 원했던 자기 마음을 다루지 않음).

2025학년도 · 창의인성 문항

2025학년도 · 자기주도학습전형 창의인성 소집면접

다음 글을 읽고 내가 A, B와 같은 반 학생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이야기해 보시오.

고등학교 1학년 A는 중간고사 2주일 전 같은 반 학생 B가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A는 B와 친하진 않지만 어쩐지 그랬을 것도 같아서 우리 반 단톡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B 행동이 안 그래도 찌따같은 부분이 있었음. 딱 학폭 당하게 생기지 않음?”

그 뒤로 A를 옹호하는 댓글이 여러 개 달리기 시작했다.

B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시험공부도 손을 놓은 채 엎드려 있는 일이 잦았다.

출제의도 · 평가포인트

이 문항은 앞의 세 문항과 성격이 다르다. 2022~2024학년도는 「어느 쪽을 우선할지」를 묻는 가치 판단 문항이었지만, 이 문항은 **이미 피해가 발생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이다.

법적으로도 이것은 명확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언어폭력**이자 **명예훼손**이며, 동조 댓글을 단 학생들도 가담자다. 그리고 B에게는 이미 **피해 징후**(수척해짐, 학습 포기, 엎드려 있음)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만 「어른에게 알린다」가 감점 요인이 아니라 필수 요소다.** 앞선 문항들의 「먼저 당사자끼리 해결」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위험한 답이 된다. **상황의 성격에 따라 원칙을 다르게 적용할 줄 아는가** — 그것이 이 문항의 시험이다.

또 하나, 발문이 「A, B와 같은 반 학생이라면」이다. 나는 당사자가 아니라 **목격자(방관자)**다. 학교폭력에서 방관자의 침묵이 가해를 키운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움직이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예시답안 · 풀이

① 상황 규정 — 이것은 다툼이 아니라 폭력이다

먼저 이 일을 「친구들 사이의 오해」로 보지 않겠습니다. A가 단톡방에 올린 글은 근거 없는 소문으로 특정 학생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이고, 이는 **사이버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옹호 댓글이 이어지면서 **한 사람 대 반 전체**의 구도가 되었고, B에게는 이미 눈에 보이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옳은지 따지는 일」보다 **피해를 지금 멈추는 일**이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② 단톡방에서 바로, 그러나 침착하게 반대 의견을 남긴다

동조하는 댓글만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침묵도 동의로 읽힙니다. 그래서 저는 단톡방에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자.」

A를 몰아세우기보다 **행동을 멈추자**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여기서 A를 공격하면 반이 두 편으로 갈라져 B가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 생각이 비슷한 친구 한두 명에게 미리 말해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혼자보다 두세 명이 같은 말을 할 때 흐름이 훨씬 잘 바뀝니다.

③ 캡처를 남기고 반드시 어른에게 알린다

그다음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고** 담임 선생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B에게 이미 학습 포기과 건강 악화 같은 **피해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끼리 시간을 끌면 위험합니다.
2. 가해가 **단톡방 전체**로 번져 학생 한 명이 되돌릴 수 있는 규모를 넘었습니다.
3.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이때 「고자질」이 아니라 **B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라고 스스로 정리하겠습니다.

④ B에게 다가간다 — 다만 조심스럽게

B에게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조용히 다가가겠습니다. 「그 글 봤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정도로 짧게 말하고, 캐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B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보다 **자기편이 있다는 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2주 남았으니 「같이 자습할래?」처럼 **일상으로 돌아올 자연스러운 통로**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⑤ A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A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A는 B와 친하지 않았고 「어쩐지 그랬을 것도 같아서」라는 짐작만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나쁜 마음을 크게 먹었다기보다 **소문을 사실로 착각하고, 반응이 오는 것에 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에게도 따로 「그 글 때문에 B가 많이 힘들어한다. 네가 직접 지우고 사과하면 좋겠다」고 말하겠습니다. **A가 스스로 되돌릴 기회**를 갖는 것이 B에게도 가장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⑥ 앞으로

이 일이 정리된 뒤에는 학급 회의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옮기지 않기」, 「단톡방에서 특정한 사람 이야기 하지 않기」 같은 규칙을 함께 정하자고 제안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출제의도 · 평가포인트

평가포인트

채점될 만한 요소	중요도
이 사안을 학교폭력(사이버 언어폭력) 으로 정확히 규정했는가	★★★
B의 피해 징후 (수척, 학습 포기)를 읽고 긴급성을 인식했는가	★★★
교사·어른에게 알리는 것 을 분명히 포함했는가 — 이 문항에서는 필수	★★★
방관자의 침묵이 가해를 키운다는 점을 알고 공개적으로 제동 을 걸었는가	★★★
혼자가 아니라 동료를 모아 움직이는 현실적 방법을 냈는가	★★
B에게 다가가되 조심스럽게 (캐묻지 않기, 공개적으로 하지 않기) 접근했는가	★★
A를 악마화하지 않고 되돌릴 기회 를 주었는가	★★
증거 보존(캡처)을 언급했는가	★
재발 방지를 학급 문화 차원에서 제안했는가	★

이 문항에서 특히 위험한 답변

- 「제 일이 아니니 조용히 있겠습니다」 — 방관 자체가 평가 대상이다.
- 「A에게 화를 내고 단톡방에서 크게 싸우겠습니다」 — 갈등을 키워 B를 더 노출시킨다.
- 「B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위로하겠습니다」 —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하는 말이 된다.
- 「선생님께는 알리지 않고 우리끼리 해결하겠습니다」 — **이 사안에 한해서는 명백한 감점**이다.

부록 · 실전 준비 체크리스트

출제의도 · 평가포인트

면접장에서 바로 쓰는 문장 틀

단계	문장 틀
상황 정리	「이 상황의 핵심은 ○○와 △△가 부딪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제시	「저는 ○○을 우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입니다.」
행동 1	「먼저 ○○에게 …라고 말하겠습니다.」
행동 2	「그다음 △△와 따로 만나 …하겠습니다.」
상대 배려	「그 과정에서 □□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인정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마무리	「이 일이 정리된 뒤에는 …도 해 보고 싶습니다.」

교과서 개념 정리

연습 방법

1. **소리 내어, 시간을 재며** — 구상 3분, 답변 2~3분으로 맞춘다. 머릿속으로만 정리하면 실제로는 절반도 말하지 못한다.
2. **꼬리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라** — 모든 답변에는 「그런데 상대가 거부하나요?」가 따라온다. 각 답변마다 반론 두 개를 미리 준비한다.
3.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다시 읽어라** — 인성 문항 뒤에는 서류 기반 질문이 이어진다. 여기서 말한 가치관과 서류의 내용이 어긋나면 신뢰를 잃는다.
4. **어른의 개입 기준을 하나 정해 두어라** — 「① 피해가 이미 발생했고 ② 계속 진행 중이며 ③ 학생끼리 되돌리기 어려운 규모라면 즉시 알린다.」 이 기준 하나면 대부분의 상황을 일관되게 답할 수 있다.
5. **실수해도 정정하라** — 말하다가 더 나은 생각이 떠오르면 「아,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고쳐 말해도 된다. 오히려 사고 과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 이 책의 예시답안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정답이 아니라 「이 정도 깊이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본보기입니다. 외운 답은 꼬리 질문 한 번에 무너집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기 경험 속에서 비슷한 순간을 떠올려** 자신의 언어로 다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